

회의록

회의제목	<목도리> 6. 21.(일) 회의록		
일시	2026. 6. 21.(일)	장소	영화의전당
참석자	권혁주, 문재현, 박성열, 이재빈, 전인룡		

논의 내용	<p>시나리오 피드백</p> <p>#2 상우의 대사는 삭제해도 무방</p> <p>#3 현재 #1과의 중복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#1에서 목도리를 줍지 않고, 무심하게 바라보는 정도로 수정 - 이후 재등장 시 목도리를 주워가는 흐름으로 수정 <p>#5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민영 대사(오늘은 일찍 마쳐요) 뉘앙스 수정, 현재는 이성 관계 암시 2. 다방 안 조명은 어두운 분위기 유지하는 방향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 켜는 액션이 민영의 입장에서 다소 어색함 - 공간의 콘트라스트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3. 담배 장면을 다방 썬 후반부로 이동 검토 (현재는 초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욱이랑 결혼했지~ 썸 - 초반 어색한 느낌 →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→ 담배가 들어가는 흐름 <p>#6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민영 대사를 당당한 톤으로 수정하는 방향 검토 2. 과거 사건은 설명이 아닌 암시하는 듯한 대사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~어리석었어'보다는 '그때 일이 있었지~' 정도의 뉘앙스로 수정검토 (강욱 감독님 피드백처럼) - 구체적인 사건 설명 없이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는 뉘앙스만 주기 3. 걸어가는 장면 콘티 고민해볼 필요 있음 <p>#7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'하루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' 보다는 기존 대사가 적합 2. 버스정류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은 구현하기 어려움 <p>#그 외</p> <p>#2와 #3 사이에 상우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 추가</p>
특이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소품 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낙엽(과 뿌릴 사다리) 2. 차 트렁크에 달리 적재 가능 3. 버스 장면 관련 논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막차 시간이 이른 관계로 운행중인 버스 이용 어려움

	<p>- 버스 대여는 방침상 불가능 (6/22 확인 완료)</p> <p>3. 촬영 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회차 촬영 : 다방, 밤 (밤샘...?) - 2회차 촬영 : 다방, 밤 장면 제외 나머지 <p>* 전날 로케이션 근처에서 숙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, 비용 문제, 당일 지원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촬영 당일 07:00 영화의전당 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</p>
추후 일정	<p>1. 배우 의상 관련 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준비 - 여배우 : 바지보다는 무릎 길이 정도의 치마, 코트 고려 <p>* 화이트 색상의 의상은 제외 (조명)</p> <p>2. 배우들과 줌 미팅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진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사 수정 방향, 남성 서사 관련 의견 수렴 - 촬영 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 소통 (감독님^^) <p>3. 창녕 곰다방 주변 재답사 예정</p>

작성자 : 문채현